

이진욱, '태양의 후예' 송중기에 도전장



MBC '굿바이 미스터 블랙' 수목극 전쟁 합류

“저희 드라마만의 장점 살리는 데 노력”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까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KBS 2TV '태양의 후예'와 맞붙는 일은 그 어떤 드라마에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태양의 후예'가 30%를 바라보는 사이 같은 날 방송을 시작할 SBS TV '돌아와요 아저씨'가 5%대의 시청률로 고전하는 가운데 MBC TV '굿바이 미스터 블랙'이 수목극 전쟁에 뛰어들었다.

16일 첫 방송을 시작한 '굿바이 미스터 블랙'은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복수의 화신 '미스터 블랙'으로 거듭나는 차지원의 이야기다.

1980년대 인기를 끌었던 황미나 작가의 동명의 만화가 원작이다.

이진욱이 몸매 뺀 장난기에 여유 만만한 '무대포'지만 뛰어난 리더십으로 대원들을 챙기는 해군 특수장교 차지원으로 분한다.

재벌 2세이기도 한 차지원은 어느 날 아버지가 태국에서 사망한 뒤 죽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 태국에서 진실을 파헤치다 탈영병이 되고 살인 누명까지 쓴다.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특수부대 대위 유시진을 연기하는 송중기와의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지점.

이진욱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 상암 사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송중기와의 차별점'을 묻는 말에 “저는 해군이고 송중기씨는 육군”이라는 말로 둘러댔다.

그는 “'태양의 후예'와 '굿바이 미스터 블랙'은 다른 성격의 드라마”라며 “경쟁한다는 생각보다는 저희 드라마만의 장점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쓰나미로 부모를 잃고 태국에서 무국적 고아로 자란 '카야' 역은 문채원이 맡았다. '카야'는 태국에서 도망자가 된 차지원을 돕고, 한국으로 와 인터넷 언론사 수습기자 김소완으로 살아가며 차지원과 인연을 이어간다.

문채원도 “드라마의 내용과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드라마의 재미에 빠질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김강우가 차지원을 배신한 민선재 역을 맡아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차지원을 끝까지 죽임으로 몰아간다.

유인영이 차지원의 약혼녀였다가 민선재와 결혼한 윤마리 역을, 송재림이 차지원과 김소완을 놓고 삼각관계를 이루는 서우진 역을 맡았다.

전체 스토리는 차지원의 복수극이지만 여기에 '보고싶다', '내 마음이 들리니'로 많은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한 문희정 작가의 멜로를 더해 시청자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은땀 멍 들고 위염까지 걸렸죠”

영화 '날, 보러와요' 강예원

정신병원 납치·감금 실화 바탕

여배우 강예원(36)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스릴러 영화 '날, 보러와요' 촬영 과정에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충을 털어놨다.

강예원은 16일 서울 중구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영화 '날, 보러와요'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내가 배우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만든 영화”라며 “(배역상) 자꾸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고, 자아가 없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 개봉하는 '날, 보러와요'는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으로 납치돼 감금되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스릴러 영화다.

강예원은 “그간 다양한 장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스릴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며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이번 영화에 출연한 계기”라고 전했다.

이어 “여태껏 배우로서 내가 했던 연기는 무엇이었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과 고민이 많았다”면서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최고의 배우인 전도연이 이 배역을 맡으면 좋겠다고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하이라이트 소개 영상을 보면 강예원은 이번 영화를 '인생작'으로 삼을 만큼 열연을 펼쳤다. 그는 영상을 보고 나서 척추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책이 낱장으로 떨어질 정도로 대본을 열심히 봤어요. '배우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겠구나'라는 반성도 했죠. (중략) 감정과 액션 모두 섬세하게 계산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정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혼란이 가장 힘들었어요.”

정신병원과 치료감호소에 감금돼 감정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심리묘사부터 무술 감독의 극찬을 받은 액션 연기에 이르기까지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뒤따랐다고 한다.

영화 촬영을 끝내고 가장 많이 변한 점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강예원은 “애전에는 매우 밝은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기분 '업'이 잘 안된다”며 “기분이 좋아도 어느 선까지만 좋다”고 답했다.

액션 연기를 한 소감을 묻자 “촬영 현장에서는 아픈 줄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면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면서 “큰 스트레스로 위염에 걸린 사실도 나중에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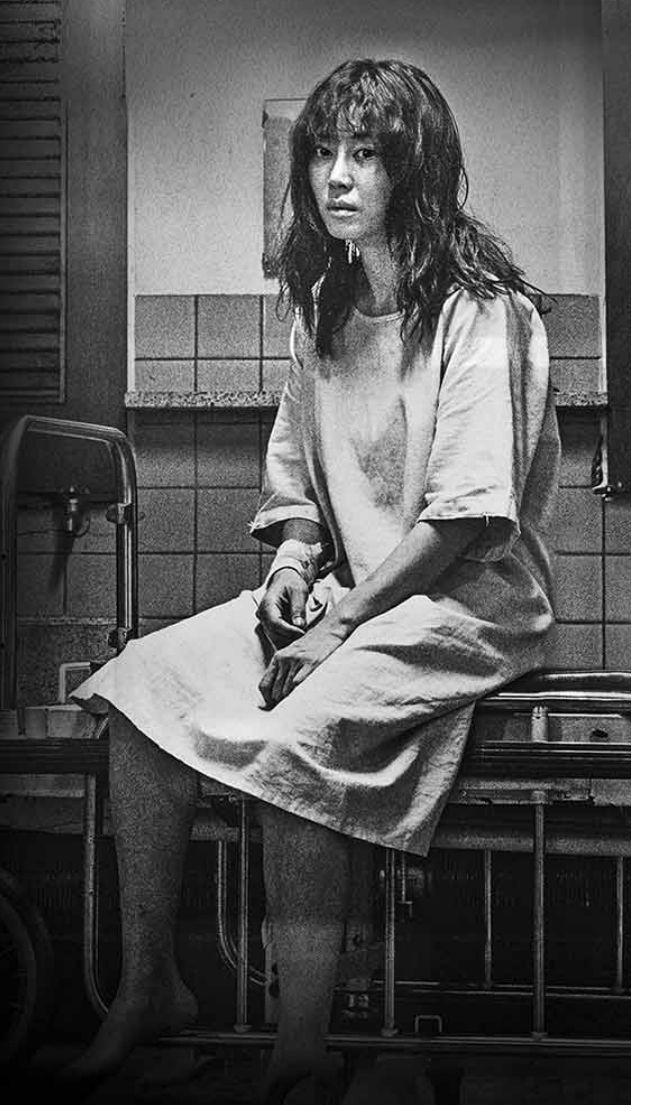
배우 이상윤(35)은 이번 영화에서 시사 프로그램 소재를 찾다가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진실을 파헤치는 방송사 피디(PD)를 연기한다.

이상윤은 “극 중에서 정교함보다는 욕심이 많은 피디”라며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빈틈없는 캐릭터를 연기하려고 했다”고 소개했다.

'사랑따윈 필요없어'(2006), '폐가'(2010), '안녕?! 오케스트라'(2013)의 이철하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다. 영화는 보호자 2명과 정신과 전문의 1명의 동인만 있으면 합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정상인이 정신질환자가 될 수도 있는 잔혹한 현실을 고발한다.

/연합뉴스

난 미치지 않았어요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0 닥터365 25 TV 불교의 힘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풍문으로 들었SHOW(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안녕 우리말(재)	0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재)	00 주말특별기획 (결혼계약)(재)	00 닥터 365 05 토크쇼트 화통
12	00 KBS 뉴스 12	50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재) (good-bye 미스터 블랙) 30 영점의 CEO들 스페셜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TV 불교의 힘(재)
1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 텔레몬스터(재) 25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55 텔레몬스터(재)	00 세상발견 유레카(재) 55 닥터 365
2 30 직인직설	00 기요무대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MBC 뉴스 10 헬로킴스 파이널스 5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3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튜브생활제조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착상 위키	2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00 고창이 보인다 30 구러기 탐구생활
4 00 쾌도남마	10 오늘의 경제 20 특집 다큐 인생 2막 멋진 신세계(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번시자동차 포뮬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5 40 김승현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강건물 남도에 살어리랏다
6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법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불교의 힘(재) 20 일일 드라마 (마녀의 성)
7 20 나는 몸신이다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8 50 서민갑부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9	00 KBS 스페셜 55 숲 터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good-bye 미스터 블랙)	00 드라마 스페셜 (돌아와요 아저씨)
10 40 아내가 뿔났다 남편반상(재)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 다큐 (철도, 미래를 바꾸다)	10 해피 투게더	10 청춘의 꿈, 청춘어람	10 자기가-백년손님
11 40 에메이징 스토리 싸인(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림 뮤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세계 최고를 찾아서 스페셜 25 MBC 뉴스 24 50 아시아 프리즘 아름다운 비밀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 생생 영어	10:30 최고의 요리비결 (두부침치스테이크)
05:30 건강한 아침	11:00 세계테마기행 (재)
05:4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중국비경 서해구역기 황산)	11:40 한국기행 생명의 호수, 탈레나이)
06:10 세계의 눈 (볼-알프스에서 북극해까지)	12:00 EBS 정오 뉴스
07:00 지파이터스(재)	12:10 통일의 길 (2016 북한패션)
07:30 꼬마버스 타요(재)	12:45 역사채널e
07:45 뽀롱뽀롱 뽀로로	12:45 연중기획 - 미래를 여는 교육
08:00 똥똥똥 유치원 1~3	13:40 오 마이 미래 2035
08:45 방귀대장 뽀롱이	13:50 이팝 스페이스 정글
09:00 곰디와 친구들	14:00 코코몽2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달라졌어요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9:50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15:00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오늘
15:10 세계사 시간여행	20:50 세계테마기행
15:20 꼬마 철학자 휴고	<셀람 에티오피아 4부 화려한 제국, 약속>
15:35 호기심나라 오기도	21:30 한국기행 (국수 기행)
15:50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015 신 결혼속속 4부)
16:00 곰디와 친구들(재)	22:45 다문화 고부열전
16:30 방귀대장 뽀롱이(재)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6:45 똥똥똥 유치원 1~3(재)	23:50 역사채널 8(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라이터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7일(음 2월 9일 戊戌)

子	48년생 언행을 무겁게 하되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롭다. 60년생 화합을 부를 일으키며 불화는 부를 피할시절이니라. 72년생 제3자의 관점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라. 84년생 처음부터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3, 70	午	42년생 변동하지 말고 기만해 있는 것이 백번 낫다. 54년생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66년생 옛 일이 괴롭거나 큰일은 아니다. 78년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62, 06
丑	49년생 대화로써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구도이다. 61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따른다. 73년생 거친 풍량이 밀려오고 앞으로 안전하게 대비하라. 85년생 수심이 깊으면 건너야 할 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2, 58	未	43년생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잔잔히 깔려 있다. 55년생 지켜보고 싶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다. 67년생 멀리서 찾고 싶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세심히 살펴보자. 79년생 방향을 잘 잡아야 할 시점임을 알라. 행운의 숫자 : 76, 41
寅	50년생 예상했던 대로 별 탈 없이 진행되리라. 62년생 대세에 합류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 74년생 핵심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의미가 있다. 86년생 새옹지마의 아치이니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0, 86	申	44년생 수익은 있으나 작다. 56년생 뜻이 확실하다면 기탄없이 추진하는 것이 낫다. 68년생 예기치 않은 지출을 키우는 일이 터지겠다. 80년생 가장 현실적이고 간단 명료한 것을 선택함이 능률적이고 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4
卯	51년생 어렵잡아서 짐작으로 판단할 일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63년생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다. 75년생 예기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7년생 경미하다면 대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23, 56	酉	45년생 실리보다 중요한 것은 조화로운 관계임을 알라. 57년생 이익의 급격한 증가가 보이는 시기이다. 69년생 단계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81년생 정확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정황이다. 행운의 숫자 : 65, 17
辰	40년생 우선순위를 역할에 상응함이 있어야겠다. 52년생 실의 기준을 판단하라. 64년생 순기능이 극대화된다. 76년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88년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순서대로 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2, 46	戌	46년생 기쁨 속에 함정이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58년생 진취적인 기상으로 펼쳐나가야 할 절호의 기회에 이르렀다. 70년생 합목적성과 투명함이 성과를 배가시켜준다. 82년생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행운의 숫자 : 52, 98
巳	41년생 대박이 날 수도 있다. 53년생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옳다. 65년생 어차피 상대적임을 알아야 한다. 77년생 견인발의 자세로 조치일관하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89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다. 행운의 숫자 : 40, 25	亥	47년생 지출이 발생했었던 정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무방하다. 59년생 간단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71년생 중흥무진 할 것이니 빠뜨림이 많을 수밖에 없다. 83년생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싶고 자연히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30, 1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